

“고삐 늦추지 않고 추진력 유지”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 적극 협조”

이장호 군산대 총장 취임 1주년 성과 공유회 열어

국립군산대학교는 16일 이장호 총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취임 1주년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

이장호 총장, 최연성 부총장,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본부 스태딩 회의실에서 진행된 성과공유회는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운영방향을 구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장호 총장은 취임 직후부터 과감하게 대학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고강도 개혁을 단행했으며, 짧은 기간이지만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스템 전환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먼저, 기존의 7개 단과대학을 2개 단과대학인 HASS대학(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s)과 ONS대학(Ocean,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으로 통합했고, 본부 직속 특성화대학부로 법행정경찰학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간호학부, 소프트웨어 학부, 자율전공학부를 두는 등 2개 단과대학, 8개 학부, 35개 학과시스템을 구축했다. 군산대학교는 개편된 시스템으로 202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했고, 지난해 대비 신입생 충원율을 대폭 상승시키는 좋은 결과를 냈다.

군산대학교가 주력하고 있는 ICC 기반 특성화대학부제는 지역산업기반 특성화를 통해 생방향 기반 산학협력 체질화하며, 수요자인 학생과 기업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 △컴퓨터소프트웨어ICC(소프트웨어학부), 디지털포렌식ICC(법행정경찰학부), 디지털포렌식ICC(법행정경찰학부) 등 학부제형 ICC와 △해상풍력ICC, 농수산식품(해안바이오)ICC 등 특성화지향형 ICC가 설치됐고, 향후 이차전지, 미래차특장기계 ICC 등 대학 실정과 지역 상황에 적합한 ICC를 발굴해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혁신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수채용방식에서도 전공지원장벽을 허물고 “자율분야 채용방식”을 도입해 3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새로운 도전을 통한 교육혁신 사례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다.

학생복지차원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다. 학생문화서비스를 신입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높였고, 통학버스 노선도 늘어 원거리 통학 학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재학생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생활관을 최첨단 시설이 구비된 개성있는 친환경공간으로 신축 중이다. 완공은 2024년 2월 예정이다.

이외에도 와이파이가각자대, CCTV사각자대, 조병사각자대 등 캠퍼스 사각자대 제거작업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캠퍼스 환경을 구축 중이다. 개강 기간 내내 양질의 간편식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도



이장호 총장 취임 1주년 성과 공유회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장호 총장은 취임 이후 군산시 청년탈 청년창업센터, 4단계 E&I 사업(새만금 에너지 인프라 건설 교육 연구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블루카본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개발사업, 해상풍력 수산업 환경공존 기술개발사업, 에너지 혁신연구센터(풍력 지지구조 분야)사업 등 굵직한 대형국책사업을 수주해 대학 재정 확충의 다변화를 이루었다.

특히,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RIS)사업’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심대학으로 최종 선정되어 융합인재 양성,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선도 기술 확보, 산학연 협업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교류에서도 몽골국립교육대학, 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 몽골국립농업대학,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케냐 등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미국 푸에블로 커뮤니티대학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현장실습 및 학생 취업, 국제교류활동을 위한 초석을 다지며 글로벌 교류영역을 확장하였다.

이장호 총장은 성과 공유회를 통해 “1년 동안의 성과는 구성원 모두가 합심한 덕분이며, 대학은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 구성원이 합심하여 함께 움직일 때에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구체적인 세부적인 실행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앞으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지금의 추진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장호 총장은 2022년 3월 18일 군산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취임했고, 임기는 2026년 3월 17일까지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사회진출을 앞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으로 취·창업 문을 활짝 열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익산청년시청은 학교 밖 청소년과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돕고 사회관계형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한다.

익산 청년시청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지선례 익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이보욱 익산 청년시장 등을 비롯해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 밖 청소년과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운영 중인 취·창업, 생활인정, 사회관계형성 지원사업의 상호보완·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과 청년이 각 기관의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하며 각 기관의 사업 홍보, 공간대여 등에도 적극 협조하게 된다.

익산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한 ‘2023년 수요자중심 장애인지원체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지원사업은 △등특장애인 발달 △중복장애인 등록 지원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지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활성화 등을 주제로 장애 특성과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 모델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발달장애인 복지정책 접근성을 강화하여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익산청년시장 업무 협약

지선례 익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학력과 자격증 취득 등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력이 익산 청년시장에서 운영 중인 취·창업 프로그램을 연계해 통해 더 큰 결실을 맺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뻐한다”고 전했다.

이보욱 익산 청년시장장은 “사회진출을 앞둔 학교 밖 청소년 또한 익산의 청년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안정적인 직업으로 정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년시장의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취업·창업' 문 활짝

익산시, 장애인 지원체계 지원사업 공모 선정

지역 소식 통

군산시의회, 정책지원관 6명 공개채용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6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군산시의회에서 작년 5명의 정책관을 채용한데 이어 올해 6명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조사 분석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지방행정정주사보)로 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신재생에너지보급 공모사업 4년연속 선정

군산시가 신재생에너지보급 공모사업에 4년연속 선정되며 국유 등 6개 읍·면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333가구(태양광 310가구 등)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해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의 비용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사업 참여 신청가구의 현장실사를 진행 중이며, 하루빨리 시민들이 에너지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산이 4년 연속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을 시민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 덕분”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2026 건강로드맵’ 완성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통한 시민 건강 향상 토대 마련

익산시가 시민 건강향상 토대 위한 ‘2026년 건강 로드맵’ 완성에 나섰다. 시는 2026년까지 신종 감염병 발생 및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환경 개선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16일 시에 따르면 제8기(2023년~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지역보건료심의위원회가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인 이진운 보건소장을 주제로 보건의료 전문가, 대학교수, 유관기관 대표, 시민의 등 30여명이 참석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종 계획(안)을 검토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해 7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을 구성해 현

황분석, 설문조사, 토론회,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됐다.

시는 2026년까지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운영 △소생활권 중심의 보건 의료기관 확충 △심폐소생술 상시 교육으로 시민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 △식품 환경, 체육, 복지 등 다분야 연계 협력을 위한 통합건강정책협의회 운영으로 4개 추진과제, 9개 추진과제, 28개 세부과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 취업지원 활성화

군산시가 군산현대조선소 재가동에 따라 안정적인 인력지원으로 조선업 고용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16일 군산조선소와 관련해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과 ‘전북 조선업 고용활성화 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말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종료됨에 따라 지원중단의 충격완충 및 고용회복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23년 지역산업및중흥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실시된다.

조춘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별관 3층에 위치한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는 조선업에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구인 기업에 대해 1:1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취업 정착금 지급 및 전가차 관련 업종 등의 군산시 주력산업 기업 매칭대비를 매월 운영한다.

또 ‘전북 조선업 고용활성화 플러스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며 숙련 근로자 유출을 방지해 조선업 관련 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